

[강국의 길에서 분발하고 새 로정에서 활보하자]

역사적으로 절대적 빈곤문제 해결하고 인민생활 전면 초요 실현



7월 3일, 엽평진 황사촌 화육화육과기지의 비닐하우스에서 일꾼들이 결가지를 다듬고 '행복의 열매'를 따느라 분주하다. / 서금신문넷

새 중국 창건 75년래 우리 나라의 도시 농촌 주민 소득과 소비 수준은 대폭 제고되고 생활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던 데로부터 전면적인 초요사회에 이르는 거대한 도약을 실현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은 괄목할 만한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 평등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의 전면 승리를 실현하고 예기대로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었고 한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공동 부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강서성 서금시 엽평진 황사촌 화육 자연촌은 일찍 유명한 빈곤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화육과기지와 백향과재배기지에서 재배농과 관광객들이 과일향 속에서 과수원을 누비며 '행복의 열매'를 따기에 바쁘다. 화육촌 화육과기지 책임자 진태평

은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통과는 맛이 특별하다며 올해 재배면적이 36무이고 무당 생산량은 2,500여근, 장출한 수입은 35만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화육과기지에서 생산한 통과는 주로 슈퍼마켓, 과일도매시장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황사촌당총지부 서기 화성은 2012년전만 해도 현지의 대부분 농민들이 저압전기와 우물을 리용하고 연간 일인당 순수입이 2,230원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마을 주민 119가구중 103가구가 흠집에 살았고 많은 가정은 4~5명이 한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짚디짚은 수년 사이 몇세대가 꿈꾸어온 '심신건강의 꿈', '살기 좋은 환경의 꿈', '치부의 꿈'이 실현됐고 마을 집단경제 수입도 수년 연속 20만 원을 넘었다.

빈곤해탈은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새생활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내몽골자치구 적봉시 립서현은 내몽골자치구에서 빈곤해탈을 실현한 첫 '국가급 빈곤현'이다.

지난 몇년간 립서현은 과수경제림 건설 목표를 세우고 농민들을 동원했다. 현지 농민 장옥민도 기타 농민들과 함께 과수 재배에 참가했다. 현재 립서현의 치부의 길은 점점 넓어지고 마을의 주거환경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 장옥민은 예전에는 출행이 불편하고 병보이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집집마다 승용차가 있으며 합작으로 결제 수준이 높아져 삶의 질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중국 창건 75년래 우리 나라 주민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비교적 빠른 성장을 가져왔고 빈곤해탈 사업은 세인이 괄목할 만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 빈곤인구의 빈곤해탈을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선차적 임무로 간주하고 전당, 전국, 전사회의 힘을 모아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을 펼쳤다.

8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2020년말까지 현행 기준하의 농촌 빈곤인구 9,899만명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현 832개, 빈곤촌 12만 8,000개가 전부 빈곤해탈을 실현하면서 지역성 빈곤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고난한 임무를 완수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 주민들의 거주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생활질이 날로 격상되었다. 2023년, 농촌지역에서는 자연촌의 88.2%가 식용수를 집중적으로 정화처리하고 96.1%가 보건소를 세웠으며 92.8%가 편리하게 소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광범한 주민들의 생활질이 날로 향상되고 소비구조가 생존형에서 발전형, 향수형으로 승격했으며 봉사성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운남성 곡정시 마룡구 장안툰가두 저자상주민소조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주택에서 전국 각지의 체류객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새 농민'으로 됐다. 운남의 모 문화관광개발회사 부총경리 왕송에 따르면 최근년간 현지에서는 '향촌체험거주'를 돌파구로 농촌의 낡은 주택 자원을 활성화해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했다.

현재 곡정시 마룡구는 저자상촌을 비롯한 체험거주 시범마을 6개를 건설했는데 입주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커피점, 문화강당 등 다양한 생활모식이 '새 농민'의 다차원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켰다. 총경리 왕송부는 앞으로 곡정시에 체험거주촌 18개를 추가 건설하고 운남성내에 피서와 피한 체험 거주촌 여러 곳을 건설해 여행객들이 운남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체험하고 향촌 진흥을 위해 기여하도록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거두고 '유엔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의정'의 빈곤감소 목표를 10년 앞당겨 실현하면서 중국은 빈곤감소 관리의 중국 본보기를 창조하고 글로벌 빈곤감소를 위해 중대한 기여를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 궈러안은 우리 나라가 절대적 빈곤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발전형, 향수형 소비가 신속하게 증가했으며 소비구조 승격을 선도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러안은 관건은 취임·소득 분배 소비간 량성 순환 기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구조 승격을 방향으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고 공급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아름다운 생활과 소비질에 대한 인민들의 추구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신질생산력이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힘있게 지지해야 한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외교부 :

조선반도 평화·안정 수호 위해 공동 노력 필요

9일, 외교부 대변인 모병은 "중국은 조선반도 정세의 발전·변화와 조한 관계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진척을 추진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동 리익에 부합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이기도 하다며 각 당사국이 공동으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화넷

조선 :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 완전히 끊어버린다 한국 : 좌시하지 않을 것



2018년 12월 26일, 조선 개성시 판문역에서 한국과 조선 대표단 성원들이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과 조선은 이날 오전 10시에 판문역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 신화넷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부터 조선은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공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조선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같이 침략전쟁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없이 출몰하고 호전광들이 조선에 대한 '정권 종말'을 일상으로 떠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묵한 군사적 정세는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쪽 국경일대에서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대처하여 조선측은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며" "당면하여 10월 9일부터 한국과 연결된 조선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防禦設施)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쪽 국경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조선측은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

지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또 조선은 7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 국광철을 국광철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이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 단절할 행위는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표했다. 이어 한국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조선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선에 있으며 만약 조선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군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반도에는 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경의선과 동해안에 위치한 동해선 두갈래 교통로선이 있었다. 1950년 조선전쟁 발발후 포화로 인해 두 철도의 군사분계선내외 부근의 일부 구간이 파괴되었으며 반도의 남북측 교통 운수가 차단되었다. 2018년, 조선과 한국 양측은 이 두 철도를 연결시키고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으며 그해 12월, 조선 개성시에 위치한 판문역에서 국경간 철도, 도로 연결 공사 기공식을 거행했다. 당시 여론은 이 조치가 반도 정세의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 신화넷

한국 여작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10월 10일, 스웨덴에 문학원 상임비서 마츠 말름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신화넷

스웨덴에 문학원은 2024년 노벨문학상을 한국 여작가 한강에게 수여한다며 그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첫 한국 작가가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스웨덴에 문학원 상임비서 마츠 말름은 이날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역사적 상처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한국 작가 한강을 표창하기 위해 2024년 노벨문학상을 그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말름은 한강에게 전화로 수상 소식을 알렸고 한강은 자신이 상을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으며 매우 영광스러웠다고 전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 앤더스 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강은 작품에서 역사의 상처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했다.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풍격으로 당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한강은 1970년 한국 광주의 한 문학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대표작 《채식주의자》(素食者)는 2007년 출간된 뒤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됐다. / 신화넷

국제에너지기구 :

중국,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확장 60% 기여



신강위글자치구 하미시에 위치한 석성자태양광발전단지(드론사진) / 신화넷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목표로 잡았던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 1,200GW(기가와트)를 6년이나 앞당겨 달성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장에서 중국이 6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이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는 대규모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덕분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성과외에도 2030년까지 전기, 운송, 난방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탈탄소화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하는 정책 동향, 기술 비용, 시스템 통합 등 여러 핵심 문제도 살피었다. / 신화넷